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 영 원 | 농협충남지역본부장



원유유출 사고 후, 1년만에 만리포 해수욕장을 다시 찾았다. 푸르른 바닷빛과 밀려드는 파도는 하얀 포말을 끊임없이 내뿜으며, 다시금 되찾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풍경을 뽐내고 있었다.

그 광경은 검은 바다 뒤로 엄습해 왔던 절망과 두려움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천지였다. 끝없이 밀려드는 기름파도와 싸웠던 전국의 120만 도우미의 손길 하나 하나가 푸른 태안을 되찾게 해준 원동력이었고, 우리는 이를 '기적의 손'이라 부르길 서슴치 않았다.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내고 온 국민의 화합과 불굴의 의지를 꽃 피우게 한 이곳, 태안에서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바로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다.

이번 축제는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아름다움을 되찾은 청정태안의 바다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진 1억 송이 화려한 꽃무리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선사할 것이다.

또한, 원유유출 사고 이후 관광객과 농수산물 소비 감소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

해안 지역경제 회복과 이미지 쇄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꽃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삶의 질이 확산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농가의 경영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는 방제작업에 동참했던 120만 자원봉사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도움을 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태안의 기적 만들기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재탄생한 청정 태안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그때의 뜨거웠던 열정과 봉사를 통한 참 행복의 의미를 회고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계기도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이처럼 많은 의미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민적 축제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번 박람회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함께 느끼면서 행사 준비 및 관람객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하는 성공적인 국제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수도권 및 각 시·도, 기초자치단체, 향우회·학교·사회·종교단체·기업체 등에 꽃 박람회 관람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신문과 방송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충남농협도 지난 2002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꽃박람회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전국 농협의 임직원과 가족들의 박람회 참여를 권장하고 입장권 예매에도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행사기간 중 이동점포 운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농촌과 함께하는 꽃 축제 한마당"이라는 주제의 『농협관』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는 농촌에 대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농업·농촌과 화훼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충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의 장도 마련된다. 박람회장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충남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또 다른 즐거움을 드리는 등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따뜻한 봄이 본격 시작되는 4월! 그리고 가정의 달 5월!

연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최고의 향기로 온 국민을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 꽃단장을 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는 도시민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농업인에게는 생명창고를 지키는 보람을, 서민들에게는 희망을, 청소년에게는 살아 있는 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값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120만 자원봉사자의 땀방울이 기적의 1억 송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이번 박람회가 충청남도의 발전은 물론 온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경제위기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재도약하게 만드는 '국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